

세계 사조와 조선 여자 기고  
십일월 육일 하오(下午) 삼시 단성사 내  
고학생 갈뜰회 주최

김원주

세계 사조와 조선 여자 기고  
십일월 육일 하오(下午) 삼시 단성사 내  
고학생 갈뜰회 주최

김원주

오늘 저 멀고 먼 이역(異域)되는 시베리아(西伯利亞)에 가서 계시던 우리의 부형(父兄)을 만난 이 자리에서 나는 이 세계 사조와 조선 여자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다소간(多少間) 가당(可當)치 못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신이 이미 여자 중의 한 사람이요, 또는 여러분께서 고국(古國)에 돌아오심은 기십년 간(幾十年間)을 해외(海外)에 계시다가 본국(本國)의 그동안 사정을 알고자 하심이라. 그리하므로 내가 되어서는 이 여자 사회의 한 사람인 까닭에 우리에게 오신 손님의 한 안내자가 되어 가지고 반도 여자계의 근황을 정성껏 소개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원래 이 문제를 '세계 사조와 조선 여자' 라고 말을 한 것은 글자를 배치함에 불과한 것이요, 기실(其實)인즉 요사이 에 떠드는 부인 문제를 지칭(指稱)함이니 가령(假令) 다시 줄여 말씀 하자면 현하(現下) 조선(朝鮮) 여자계의 상황이올시다.

그러한데 원(原) 문제되는 세계사조라 하는 것을 잠시 말씀하자면 방금

세계에 창일(漲溢)한 사조는 구주(歐州) 전란이 중국을 고한 수년 이래로 우리의 일반 인류 사회는 다 각기 구 사회를 파괴하고 신 사회를 건설하여 조금이라도 불행을 끼치는 사건은 모두 없애야 버린 후에 달고 맛있는 참된 행복의 생활을 영위코자 함에 일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개조 운동이 작고 실현이 되어 나가자 세계의 대 문제이던 이 부인 문제도 해결의 서광이 점차로 가깝게 비추어 온 것이올시다. 혹 부인 문제에 대하여 타견이 없는 이는 말하기를 이 문제가 근세에 발동된 것으로 신기한 생각을 품는 이도 없지 않지만 기실 결코 불연(不然)하니 다만 문화의 보급과 시세의 발전을 종(從)하여 시시로 그의 형태가 다소간에 변동된 점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류가 발생된 최초부터 이 문제가 존재하였던 것은 명확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다. 요컨대 이것이 곧 헌옷을 벗고 새 옷을 두르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면 부인 문제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말로써 외치노니 이 곧 국(國)과 국(國) 사이에 문화의 정도를 따라 다소간 외양의 다름은 있을지 언정 우리의 인류는 마땅히 남녀라 하는 성별에 제한을 두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여자에게도 남자와 동일한 평등의 권리와 평등의 자유와 평등의 기회와 평등의 의무와 평등의 노작(勞作)과 평등의 향락(享樂)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 대개 인성(人性)에 최선(最善)한 생활은 이것이 실현된 연후에야 있을 줄로 믿는 바이올시다.

그러한데 이 부인 운동의 기원을 잠깐 말씀하자면 이 문제가 이 세간(世間)에 나타나서 인(人)의 해방 등을 절규하기는 최근 십팔 세기 중엽이라고 하지만 그 사상이 발현되는 (것은) 그 보담도 일층 요원(遙遠)한 시대에 있었으니 즉 십오 세기의 후반으로부터 십육 세기의 후반까지 이르는 소위 문예부흥시대 그 때인줄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출세간적(出世間的)인 종교로 우리나라 인성관이 인문(人文)의 발달을 억압하고 현대의 생활을 저주하여 인력(人力)이란 의빙(依憑)할 것이 못 된다 하는 인습(因襲)과 전설(傳說)의 무한한 고통을 받아온 사회가 고전문학의 연구로 인하여서 희랍(希臘), 로마(羅馬)의 자유를 사모하며 다시 과학에 진보됨을 좇아 인

권의 위력이 있음을 알고 위선 사상의 해방을 부르짖은 것이니 인생의 의의를 존중하는 인문주의가 현출(現出)함에 이르러 하등의 권위를 인정치 아니하던 개인도 점차로 발연(勃然)히 각성하여 비로소 개성의 의의와 개성의 위력을 천명(闡明)히 발휘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리하여 인류는 최구(最久)한 전습(傳習)의 속박을 탈각하고 개인은 자주적 각성을 촉기(促起)당하게 되었으니 차시(此時)를 제(際)하여 타(他)보담도 일층 더 다대한 속박을 당하여 오던 우리의 여자도 자각 돌진(突進)하여 그의 울적(鬱積)하던 불평을 풀고자 방금 도화선에 화(火)를 종(縱)하려 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저 십칠 세기가 지나가고 십팔 세기도 거반(居半)이나 된 일천 칠백 오십 이년에 장 자크 루소(Rousseau, Jean-Jacques) 씨가 이에 화약을 폭발하려고 큰 횃불을 들었다 하는 것이니 그네의 자유 평등의 사상이 곧 이것이올시다. 그때에 루소 씨는 사회계약설이라 하는 학설을 발표하여 사회라 하는 것은 개인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서 성립된 것이라고 극단으로 개인주의를 선명하였으며 거듭 인권론을 제창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청년간 부자연한, 남자의 억압과 질곡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여자도 심이(心耳)에 받은 바 영향이 없지 아니하여 불평의 소리가 일제히 일어나자 부인의 지위 즉 경우(境遇)에 관한 각성과 차에 대한 혁명 운동의 불뚝이 요원을 사르고자 하는 기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일천칠백팔십구년에 불란서에서 일어난 혁명의 함성은 전세계 사상에 신기원을 획(劃)하였을 뿐 아니라 차가 부인 문제의 전제가 되자 그 해 십월 오일에 필경 부인의 일단(一團)은 파리로부터 베르사이유에 진군하여 국왕을 옹(擁)하고 당시 헌법 중 왕위에 등(登)하는 권리는 다만 남자에게만 유(有)한 것이라 한 법문의 부당함을 논격하여 우리 여자도 사람인 이상에는 남자와 동일한 권리를 여(與)하라 주장하였고 차에는 로스 라콤브(Losc Lacombe)의 공화적 혁명 부인이라 칭하는 일 단체가 다시 생겨서 그 운동에 참가가 되었으며 그 중 올림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여사라 하는 이는 선언서를 발표하여 국가라 하는 것은 남녀의 공동으로 성립이 된 것이니 의당 국법은 국민 전반의 의지에 의치 아니치 못할 것이라.

여자도 남자와 같이 대의원이 되어 가지고 당당한 일국의 일원으로서 국회에 참여하는 권리를 주어야 하겠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하나 이 점에 대하여 우리가 다같이 주의할 것은 현대 부인 운동의 비조(鼻祖)를 얼른 생각하기에는 루소 씨와 같지마는 기실 루소 씨의 자신 인즉 그네는 결코 여권론자가 아니라 도리어 극단의 여권 공격자이였습니다. 즉 환언하자면 루소 씨의 근본적 정신은 우리의 여자로 하여금 모두 저 남자의 완롱물(玩弄物)을 작(作)코자 함이 있었으니, 그네의 주창한 바 부녀란 남자에게 대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였고 또는 남자는 강한 고로 여자를 지배하여 명령할 것이라 하였으며 교육 의견 발표 중에도 여자를 교육하는 주의는 다만 순연(純然)한 양처현모(良妻賢母)를 양성함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여 금일 부인의 각성과 부인 운동의 기운과는 사실상 아무의 관계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부녀가 자유사상의 발흥시대(勃興時代)를 당하여 천재(天才)의 절규한 인권론자(人權論者)의 인권론을 정당히 활용하고자 하여 활동함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현대 부인 문제의 중추인 소위 부인 운동은 제일 먼저 불란서에서 발동이 되었다가 일천칠백구십삼년에 올림프 드 구즈 여사가 키요틴의 하루 아침 이슬로 사라진 뒤에 의회는 부인 단체의 해산을 명하여 봉화를 거(擧)하였던 부인 운동자들은 일시(一時)는 하등의 효과도 주(奏)치 못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그 각성의 여파는 홀연히 전 세계 수처(隨處)마다 다시 일어나기를 끊어지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북미 합중국이 먼저 신흥국의 기운을 타서 부인의 자각을 실현하였고 종(從)하여 영국과 독일과 기타 구주 제국에서 차의 동요가 속출(續出)되자 지금은 동양으로 침입하여 중국으로 일본으로 또는 우리 조선에까지 파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하면 우리 동양의 여자 운동은 또한 어떠한지요? 우선 중국으로부터 말하자면 중국도 세계의 사조가 수입됨을 따라 그의 운동이 맹렬하여졌습니다. 금에 그 이삼의 예를 거론할진대 중국 여권 사상의 여결인 오방란(吳芳蘭) 심패정(沈佩貞) 당군영(唐群英) 등의 제 부인은 방금(方今) 학교

도 건설하고 잡지도 발간하며 또는 정치적 혁명의 기운을 타서 여자의 참정권 운동도 일으키고 혹은 홍십자군(紅十字軍)을 조직하여 자선사업 등에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방란(吳芳蘭)의 일파는 반전족회(反纏足會) 발기하여 중국 여자는 사실상으로 해방의 서광이 크게 비추었으니 원래에 부인의 전족은 부인으로 하여금 일실(一室)에 유폐하여 생리적으로 부인의 자유를 방해하여서 부인이 외계에 촉(觸)함을 금한 까닭입니다. 그리한데 근일에는 중국 여학교 출신자의 부인으로 남녀 동권(男女同權)과 부인 참정권자(參政權者) 일파를 제하고서는 부인의 자유를 오해하여 혹은 청루(靑樓)로 혹은 주사(酒肆)로 타락이 되는 자가 불소하기로 작금은 사세 부득이 경찰이 차(此)를 취체(取締)하게까지 되었으니 아무리 몇 천년동안 극단으로 억압된 바의 반동이라 할지라도 나는 중국 장래의 부인운동을 위하여 슬퍼하는 바이올시다.

그리하면 다시 눈을 돌이켜 일본의 부인 사회를 일별(一瞥)하옵시다. 동양의 선진국으로 일찌기 이 서양의 문명사조를 흡수한 일본은 비교적 중국이나 조선보다는 그의 운동이 통괄적(統括的)이요 수리적(修理的)이므로 오늘은 제법 보고 취할 것이 많습니다.

금(今의) 피(彼) 일본 여자의 그 주장하는 점(點)을 대강 들어서 말하자면 일(一)은 독신생활이니 본시 일본의 가족생활은 인습과 전설로 유(由)하여 부인이 가정에 있을 시에는 반드시 부모를 좇으며 출가한 후에는 남편을 좇으며 늙어짐을 당하여서는 자식을 좇는다 하는 소위 삼종(三從)하라 하는 질곡(桎梏)을 벗어나지를 못하였으므로 이것을 새 부인들은 타파 개조 하자고 주창(主唱)하는 것이요.

일(一)은 여자의 교육이니 여자 운동자는 여자의 교육도 절대로 남자와 동일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여자에게만 한하여 순종의 덕을 가르친다든지 또는 현모양처주의의 교육을 강제로 시(施)하는 것은 아주 불가한 것이라고 반대의 성(聲)을 양(揚)하는 것이올시다. 무론 그의 주각지(主脚地)는 결국 부인의 능력이 남자 보담 열(劣)할 바이 없을지니 현재에 상위(相違)가 있는 것은 인습의 결과이라. 여자에게도 대학의

교육까지 허함이 가하다 주장하는 것이요. 또는 직(職)취(就)한 여자가 가정에만 폐거(閉居)하여 있는 것은 이미 과거시대에 속할 자이므로 현금 여자는 마땅히 자기의 능력대로 남자보담 못지 아니하게 각 방면에 대하여 활동함을 힘쓰라고 부르짖는 중이올시다.

그리하고 차외(此外)로는 폐창운동(廢娼運動)이 있으니 대개 여자로 천업(賤業)에 종사하는 것은 부인의 체면을 오손(汚損)케 할뿐만 아니라 이것의 존재를 요구하는 남자의 존재는 우리의 여자를 멸시하는 것이요, 우(又) 기 차(其次)는 법률상의 주장이니 법률이 부계를 인정한 결과로 남자는 법률상에 모든 우선권을 유(有)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하면 천(天)이인(人)을 창조하실 때에는 물론 남녀간에 하등의 차별이 없었을 것이어늘 하고(何故)로 지금 와서는 여차(如此)히 되었는지 나 역(亦) 여자 중 일인 이웁기에 실로 차를 사(思)함에 불평함이 적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병역으로 말할지라도 병역에 나가지 아니하는 남자가 도리어 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도시 남존여비의 과거 관습이 너무나 지독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문제와 재산소유권의 관한 주장이 수년 전에 신 민법 발표자로 인하여 해결을 고(告)하겠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여자에게는 참정권 급 기타의 요구가 십분 성효(成效)를 주(奏)치 못하였으니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차 등의 제 권을 근본적으로 해결치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상에 논한 것은 이미 세계사조의 대략을 진술함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그러하면 현금 우리 조선 여자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열른 보기에 는 요요(窶窶)하고 적적한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의 여자들은 참정권을 얻으려고 떠드는데 우리 조선의 여자는 아직도 오히려 칠거(七去)와 삼종(三從)의 질곡(桎梏)을 벗어나지 못한 부인이 있으며 다른 나라에는 병역에까지 종사하는 여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가정 밖을 한 걸음도 떠나지 못한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나는 이것을 비판치 아니 합니다. 남보담 못지 아니한 우리 조선 여자가 결코 이 격렬한 사이에 처하여 부엌과 육아장(育兒場)에서 안한(安閒)한 세월(歲月)만 보내고 있지 아니할 것을 믿

습니다. 설령 스스로 이와 같은 것을 자취(自取)코자 할지라도 그의 사위(四圍)의 사정은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 할 것이올시다. 여러분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조선 여자도 필경에는 각성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부인 문제라 하는 것은 국(國)과 국(國)의 형편을 따라서 그의 요구도 다를 것이므로 우리 조선에도 그의 경우와 그의 처지를 수(隨)하여 운동이 시작된 것이올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몇천 년 동안을 집안에만 칩거하여 교육이란 무엇인지 모르던 여자들이 우리도 배워야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기 교문으로 향하여 나가게 된 것이올시다. 그리하여 새로운 교육을 받은 여자들은 우리의 어두운 부녀의 사회를 계발(啓發)코자 하여 이에 차(此)에 관한 잡지 등도 현금(現今)에 와서는 사오 종에 달하였습시다. 누구는 말하기를 다른 나라에서는 여자계의 잡지와 신문 등이 수천 수만 다대수로 발간이 되는데 여간(如干) 몇몇 종으로 무슨 효과를 득(得)하겠느냐고 하시는 이도 없지 않지만 다만 일종의 잡지라도 우리의 참된 정신으로 우리의 참된 뜻을 적어 놓은 것이고 보면 그다지 낙심할 것은 없으므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뿐만 아니라 종래로 남편에게만 생활을 의뢰하던 부인들이 자기 생활의 불안함을 각(覺)하여 직업 방면으로 나가게 된 것도 기실 많아졌으니 예를 들면 양잠소(養蠶所)나 학교 교사나 또는 연초(煙草) 직공 등으로 이전에는 한번도 하여 보지를 아니하던 노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합리한 결혼으로 처참한 말로에 빠지는 불쌍한 여자들을 위하여 자유 결혼이라 하는 것도 우리 조선에 시작이 되었으니 전일 같으면 인습에 얽매어 지키기 싫은 정절을 억제(抑制)로 지키고 일평생을 비참히 과부의 생활을 하던 부인들도 지금 와서는 반수 이상이나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한 가지 다시 말할 것은 근일 해외로부터 업(業)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자 중에 흔히 자식까지 있는 그의 아내를 교육이 없다는 편견으로 이혼을 하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른 보면 심상한



문제와 같지만 기실 조선 여자 사회의 큰 문제이므로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우리 여자된 사람의 해결할 책임을 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일방으로는 남자된 이도 한번 반성의 각오를 두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 남자라고 다 교육을 인생 최초시부터 자득한 것이 아니올시다. 물론 자기네들도 배움으로부터 지식을 얻은 것이니 우리 여자에게 대하여 그 다시 횡포하고 박정하게는 못할 것이올시다. 더구나 양처현모의 본의를 해석치도 못하는 그네로서 신문이나 잡지 상에 기탄(忌憚)없이 양처현모의 주의를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몰상식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래에 양처현모라 하는 것은 양부(良夫)가 있어야 양처(良妻)가 있다 하는 것이니 무릇 양부라 하는 것은 그의 아내를 잘 이해하여 주는 남편을 지칭하는 것이올시다. 그러하므로 이것이 피차에 서로 이해한 연후에야 비로소 가정도 단락(團樂)하여지고 사회도 종(從)하여 건전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데 우리 조선에 이 부인 문제가 발현된 것은 지금부터 삼십여 년 전에 처음으로 여자의 교육이 시작될 때이었습시다. 그러하나 그때로 말하면 교육을 받는 여자 자신도 그리 오늘과 같이 철저히 하계는 깨지를 못하여 다만 그의 사상이 여자도 배워야만 하겠다 하는 단순한 생각에 지나지 못하였습시다. 그리하자 그것이 점차로 진보됨을 좇아 오늘에 와서는 필경은 인격문제도 교육문제도 경제문제도 주창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다만 나는 최종의 일언으로써 외치노니 금후로부터 우리 조선 여자의 취할 방침은 아무쪼록 전 세계의 밀려들어오는 사조를 잘 이해하여 이것을 소화시키는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인습과 모든 우상을 타파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다시 남자 되시는 이에게 대하여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남자도 남자된 본분으로 여자를 잘 이해하여 종래의 구습(舊習)을 해탈하고 남녀(男女)가 동등(同等)으로 사회나 또는 국가를 위(爲)하여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차별을 두지 말도록 하여 줌시사고 하는 것이올시다.

변변치 못한 말쑤으로 여러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이는 평일에 사랑하여 주시던 동정의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